

# Active X 와 웹표준 접근성

김예찬

## 1. Active X

### 1) Active X

액티브X(ActiveX)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액티브X는 컴퓨터트 오브젝트 기술과 객체연결삽입을 적용해 WWW 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들을 이용하는 데 이용된다. 액티브 X는 전반적인 기술 혹은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가리키며, 액티브X 컨트롤은 액티브X를 이용해 만든 작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부분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플러그인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Wikipedia - <https://ko.wikipedia.org/wiki/%EC%95%A1%ED%8B%B0%EB%B8%8CX>)

### 2) 국내 웹에 Active X가 정착되게 된 이유 및 배경

- 공인인증서
  - ✓ 공인인증기관이 MSIE ActiveX기반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융거래시 전자서명
  - ✓ 금감원에서 금융거래시 전자서명을 요구하며 공인인증 전자서명은 현재 ActiveX로만 가능하다.
- 보안서버 구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하위 시행령 하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에서 SSL방식과 응용프로그램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 응용 프로그램 방식은 공인인증서 사용모듈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ActiveX로 전자서명이나 End-to-End 암호화가 가능한점을 개발업체에서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일반 업체에까지 광범위하게 ActiveX가 확산되게한 원인이다
- iframe에 대한 오용
  - ✓ Javascript DOM 제어 등을 통해 ActiveX를 꼭 사용해야한다면 그때 잠깐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R&D가 부족하여 iframe등을 통해 무조건 ActiveX를 깔도록 요구한다.

## 2. 웹 표준과 웹 접근성

### 1) 웹 표준

웹 표준은 월드 와이드 웹의 측면을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표준이나 다른 기술 규격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최근에 이 용어는 웹 사이트를 작성하는 데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웹 디자인, 개발과 관계가 있다.

수많은 상호 의존성이 있는 표준들과 규격들 가운데 일부는 단지 월드 와이드 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관리 측면이기도 하며 이러한 표준들은 직간접적으로 웹 사이트, 웹 서비스 개발과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 모두 "웹 표준"이라고 부르지만 웹 표준으로 이동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용성과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수준의 표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 더 넓은 뜻의 웹 표준은 다음을 이룬다:
  - ✓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 ✓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ETF)가 출판한 인터넷 표준 (STD) 문서
  - ✓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ETF)가 출판한 RFC (Request for Comments) 문서
  - ✓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출판한 표준들
  - ✓ Ecma 인터내셔널 (이전 이름은 ECMA)이 출판한 표준들
  - ✓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출판한 유니코드 표준과 다양한 유니코드 기술 보고서 (UTR)
  - ✓ 인터넷 할당 번호 기관 (IANA)이 운영하는 이름과 번호 레지스트리

### 2)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떤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이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장애가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과 노인도 인터넷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이 아닌 매킨토시,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외의 모질라, 파이어 폭스, 오페라, 링스 등의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 웹 접근성 구성요소

- ✓ 콘텐츠: 웹상의 정보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구조나 표현을 위한 마크업 또는 코드
- ✓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및 사용자 도구: 웹상의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 ✓ 보조기술: 화면낭독 프로그램, 대체 키보드, 스위치, 스캐닝, 소프트웨어, 화면확대 프로그램 등
- ✓ 사용자: 웹을 이용하는 사람( 장애인, 노인 등 포함)
- ✓ 개발자: 디자이너, 코더, 저작자 등
- ✓ 저작도구: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 평가도구: 웹 접근성 평가도구로 HTML Validators, CSS Validators 등이 포함

### 3) 국내외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의 현상황

- 국내

'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시행되고 있다.

- 미국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마련해왔다. 1996년 개정된 미국 통신법 255조 미국 장애인 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1998년 개정된 미국 재활법에서는 전자 및 정보기술을 개발, 보급, 유지보수 및 사용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법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 일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일찍이 부터 고령자가 사용하기 쉬운 제품, 서비스, 생활 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협력을 얻어 성립시킨 최초의 ISO 가이드이 'ISO/IEC 가이드 71'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2003년 6월 20일에 일본공업규격 'JIS Z 8071 ' 을 제정하였다.

### 3. 느낀 점

Active X 와 웹 표준/접근성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과제를 해주신 강사님의 의도는 웹표준과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진 프로그래머로 성장하길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Active X 는 개발자가 윈도우 환경 안에서 편의성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할 수 있는 환경아래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을 결여한 개발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사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한 결과는 편한 서비스와의 비교로 이어지고 그 기술은 아무리 훌륭하고 보안적으로도 강점을 갖추었다해도 좋은 기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태도 역시 위와 같은 사례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웹표준과 접근성에 대한 기술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결여한 개발자가 되지는 말아야 겠다.